

여야, 공천룰 정비...내년 6·3 地選 준비 박차

민주당, 컷오프 최소화 '3회↑ 탈당자' 배제 당원 비율 상향 검토 鄭 "당원 주권 반영" 국힘, 전략공천 줄이고 완전국민경선 검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룰을 정비하는 등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봄입' 효과를 노린다

는 목표를 세웠다. 정경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역올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범외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배제할 방침이다.

가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된다. 이런 기준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래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괄기획단을 조기 가동하며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번 총괄기획단은 우선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공천 문제와 관련,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인 서울, 부산 등 광역 지자체의 경우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 기획단의 기조다. 기획단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 경선이 진행된다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 격전지에서 후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기획단의 이런 공천 계획은 통상 정책 집행 능력이 있는 여권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12일 오전 북구 첨단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20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SRF 중재 포스코이앤씨에 정면 대응

국정감사서 부당 행위 공론화 방침 손배 소송 검토·중재 절차 이의제기 박근혜 의원, 중재법 개정안 발의도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열화료(SRF) 시설 운영 중재에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2천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가운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의 면담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시는 국정감사와 소송, 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공세 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를 활용해 포스코이앤

씨의 부당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중재와 별도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SRF 시설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매립장 수명이 5년 가량 단축되는 등 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묻는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도 공식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당초 양측은 '운영비용 및 사용자 78억원'을 두고 다투기로 합의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도중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하면서 2천100억원 배상을 요구했고, 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정이 당초 합의된 중재 범위를 벗어난 '권한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중재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 중재 절차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장점이지만, 단선제로 운영되다 보니 중재 도중 과도한 청구액 증액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근혜(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의 경우 '최초 신청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증액은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재에서 포스코이앤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축제·행사장 '안전 먹거리' 환경 만든다

도, 미식박람회 등 식음료안전센터 운영 위생 지도·점점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전남도는 12일 "가을철 지역축제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도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모이는 가을철 축제와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지만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실외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양시원 기자

이에 전남도는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식음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1-26일)와 해남 LPG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10월16-19일)에서 식음료안전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박람회 식음료안전센터에 식품위생감시원 163명이 투입돼 행사장 식음료시설 37개소(식당 24개소, 카페·스낵 6개소, 푸드트럭 5개소, 편의점 1개소 등)에 대해 매일 위생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가을 나들이철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든 방문객이 건강한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18-19일 혁신도시서 '빛가람페스티벌'

공연·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시는 전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민어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 합창단, 전남도립교향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버블·별론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 가수 김강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이어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8년전7억매수 / 5억3,000처분]
광주 신안동 먹자통 상입지100평
2층건물 주차6 다용도건물

[은행감정가 6억2,000/급처분4억]
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8층
135평 승강기1 주차40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대출감정가21억/급처분가17억]
목포 상동 로데오 4층상가빌딩
보증금5,000 월세1,250(부가세별도)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